

III. 주거(住居)

1. 가옥구조(家屋構造)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는 크게 나누면 안채와 사랑채로 구분할 수 있다. 안채에서 안주인을 비롯한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였고, 사랑채는 바깥 주인을 비롯한 남자들의 생활 공간이다. 건축 자재는 목재를 이용한 목조 건물에다 기와로 지붕을 덮은 기와집과 짚이나 띠(茅)로 덮은 초가집이 있다.

[1] 초가(草家)집

초가집은 갈대나 새, 벼짚 등으로 지붕을 이은 집인데, 특히 갈대나 새를 엮어 이은 지붕을 '새나리 지붕'이라고 하며 이것은 벼짚으로 이은 지붕보다 비교적 깨끗하고 수명도 오래간다.

농촌에서는 가을 추수가 끝나면 벼짚으로 '이엉'을 엮어 지붕 위를 덮고 용마루에는 짚으로 '용마름'을 틀어 올린 다음 새끼줄을 세로와 가로로 단단히 엮어 맨다. 이것이 벼짚 초가지붕인데 처음에는 황금빛으로 곱고 깨끗하나 몇 달 후에는 부식되어 회색으로 변하며 여름철에 비르맞아 부패하므로 견년제로 지붕을 다시 이어야 한다.

초가지붕은 단열 효과가 있어 보온이 잘 되는 장점도 있으나 매년 또는 격년제로 지붕을 새로 이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인화성이 강하여 화재의 염려가 있으며 여름 장마철에는 지붕이 썩어 벌레가 생기는 등 단점이 많아서 최근에는 항석, 슬레이트, 기와 등으로 지붕을 개량하였으므로 농촌에서도 초가를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2] 기와집 (瓦家)

기와로 지붕을 덮은 집을 기와집, 와가(瓦家), 와옥(瓦屋), 자집등으로 부르는데 초가집보다 재목이 굵고 튼튼해야 한다. 따라서 가난했던 우리 농촌에서는 초가집이 대부분이었고 기와집은 한 마을에 한두집이 있거나 아주 없는 마을도 있었다. 그러므로 기와집은 곧 부잣집의 대명사처럼 쓰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낙랑(樂浪)시대의 건물에 기와가 사용되었으며 삼국시대에는 중국의 육조시대 영향을 받은 연꽃 무늬 기와를 많이 사용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개발된 청기와는 매우 우수한 기와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기와는 찰흙을 반죽하여 불에 구워 만든 토기와(土基瓦),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만든 시멘트 기와, 금속판을 가공하여 만든 금속기와 등이 있는데 금속 기와로는 구리로 만든 동기와(銅基瓦)가 대표적이다. 흙으로 만든 기와에는 유약을 발라 광택이 나는 시유와(施釉瓦)가 있고, 유약을 바르지 않은 무유와(無釉瓦) 중에는 붉은 색이 나는 적와(赤瓦)와 흑회색의 훈와(燻瓦)가 있다.

[3] 기둥과 보

전통 한옥의 주재료인 목재는 기둥(桂)·보(樑)·도리·석가래로 쓰인다. 허술한 초가에는 통나무를 그대로 쓰지 마는 원칙적으로 기둥·보·도리는 모두 네모지게 깎아서 사용했으며 궁전(宮殿)

이나 전각(殿閣)에 한하여 둥근 기둥에 굴도리를 얹고 둥근보를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기둥 머리의 장식도 민가에는 대접받침에 보머리를 끼우고 도리와 장여 사이에 소주를 기웠다. 이에 반하여 전각(殿閣)의 기둥머리는 포살미를 하여 화려하게 장식 하였다.

(1) 기둥머리

· 도리·소루(小累) : 기둥과 기둥위에 올려 얹히는 나무를 도리라고 하는데 둥근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며, 네모지게 깎거나 제재된 목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모나게 만든 도리르 '민도리'라고 한다.

도리 밑에서 도리를 받치고 있는 모진 나무를 '장여' 또는 '장려'라고 하는데 보통 세치(9cm) 두께에 높이가 다섯치(15cm)되는 긴 나무이다. 이 장여에 아름다운 멋을 내기 위하여 네모진 나무토막을 끼우는 것을 '소루(小累)' 또는 '소로'라고 하며 '접시받침'이라고 부른다.

도리와 장여 밑에 접시받임을 한 집을 '소로수장집'이라 한다.

· 대접받침 : 기둥 머리를 장식하기 위하여 끼우는 대접처럼 넓적하게 네모진 나무를 '대접받침'이라고 하며 '대접 소로' 또는 '주두(桂頭·桂斗)'라고도 부른다. 주두(桂頭)의 아래 쪽은 기둥의 굽기에 일치하도록 깎아 맞추고 위 쪽은 장여를 끼울 수 있도록 '+'자 모양의 홈을 만들었다.

(2) 보(樑)와 간(間)

한옥(韓屋)에서 보(樑)을 들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대들보(大樑)까지 포함된다. 들보는 간(間)과 간(間) 사이의 두 기둥머리를 건너지로는 나무이며 '봇장'이라고도 한다.

간(間)은 집의 간살을 세는 말로서 흔히 '초가 3칸' '6칸 대청'등으로 쓰이는 말인데 도리 4개로 둘러 막은 한옥의 한 칸을 뜻한다. 보통 7평방척, 8평방척, 9평방척을 한 칸으로 한다.

칸수(間數)에 따라, 한옥의 규모를 헤아리게 되며 규모에 따라 삼량(三樑), 사량(四樑), 오량(五樑), 칠량(七樑)등의 들보 배치를 설계하였다.

· 삼량(三樑)집 : 보를 세줄로 놓아 한 간통으로 집을 짓는 방식이다.

가장 규모가 작은 집의 구조이다.

· 사량(四樑)집 : 들보 네 개를 서로 평행하게 엮어서 한 간 반통으로 집을 짓는 방식이다. 이 때에 한 간통은 방이나 부엌으로 꾸미고 반 간통은 뒷마루로 꾸미는 것이 일반적이다.

· 오량(五樑)집 : 보를 다섯 줄로 놓아 넓이가 두 간통 되게 집을 짓는 방법이다.

이러한 오량집을 겹집이라고도 한다.

· 칠량(七樑)집 : 집의 갈비가 세 간통 되게 넓은 집을 지을 때 오량으로는 상연(上椽)의 경사가 급하지 못하므로, 두 줄을 더 놓아 짓는 방식이다. 한옥의 규모로는 가장 큰 것에 속하는 구조이다.

[4] 반 자

반자는 한옥(韓屋)의 방이나 마루의 천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시설이다. 반자를 들이기 위하여 가늘고 긴 나무로 가로·세로로 짜서 반자들을 만드는데 대개 화려한 무늬가 있는 종이로 바른다.

반자는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목반자·지반자·철반자·토반자 등이 있고, 모양에 따라 샷갓반자·장반자·우물반자·평반자·소란반자·순각반자 등이 있다.

(1) 빗반자

빗반자는 천정이 한쪽으로 비스듬히 경사지게 만든 반자이다. 빗반자를 만드는 이유는 가옥의 구조에서 기둥이 짧아 천정이 낮기 때문에 수평으로 평반자를 만들면 오히려 불편하므로 천정의 경사도를 따라 비스듬하게 반자를 하는 것이다. 빗반자의 대표적인 형태가 샷갓반자이다.

(2) 샷갓반자

천정을 꾸미지 않고 서가래와 산자가 드러나 보이도록 종이에 풀을 칠하여 서가래 모양 그대로 바른 빗반자의 일종이다. 대개는 토담집이나 천정이 낮은 왜소한 한옥에 시공하는 반자이다. 천장의 중앙부는 높고 가장자리는 비스듬히 낮아져서 마치 샷갓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샷갓반자라고 한다.

(3) 평반자

평반자는 천정에다 수평으로 반자들을 만들기도 하고 가늘고 길게 썬 목재(오리목)로 드문드문 엮거나 또는 철사, 첩덩쿨 따위로 천정에다 수평으로 망처럼 엮어 놓고 종이를 바른 반자이다. 평반자는 '수평반자'라는 뜻인데 이 평반자는 재료, 구조 또는 무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명칭으로 부른다.

· 장반자 : 반자들을 짜지 않고 긴 널빤지를 그대로 쫓죽 대서 만든 목반자이다.

· 평반자 : 가는 오리목을 드문드문 엮어서 종이를 반반하게 바른 지반자이다.

· 우물반자 : 우물 반자를 '격자천장(格子天障)'이라고도 하는데, 장귀틀과 동귀틀로 반듯한 정방형의 틀이 생기도록 짜고 청판으로 끼워 꾸미는 목반자이다.

청판(廳板)은 '청널'이라해도 하는데 마루나 배 같은 데의 바닥에 까는 널빤지이다. 이 청판에 서로로 길게 놓은 귀틀이 장귀틀이고, 두 장귀틀 사이에 가로지르는 작은 귀틀이 동귀틀이다.

· 소란반자 : 본바탕에 파거나 또는 가느다란 나무조각을 따로 대어서 턱이 지게 만든 물건을 '소란(小欄)'이라고 하는데 소란반자는 반자들을 '井'자를 여럿 모은 것처럼 소란(小欄)을 맞추어 짜고 그 구멍마다 네모진 널 조각의 개판(蓋板)을 얹어 만든 것이다.

이 소란반자를 '조정(藻井)'. '천화판(天花板)'. '현란(懸欄)' 등으로 부르는데 우물반자와 비슷한 구조로 만든 매우 화려하고 섬세한 목반자이다.

· 순각반자 : 반자틀에다가 상사를 치고 반자 구멍에 널조각을 끼워 넣은 목반자인데 반자틀과 널조각에 문양이나 문양 문자를 그리거나 조각하여 입체감과 화려한 멋을 낸 목반자이다

'상사'는 '상사 대패' 또는 '상사밀이'를 이용하여 기둥이나 책상 따위의 모서리에서 조금 안쪽으로 오목한 홈을 파낸 두 개의 가느다란 줄을 말한다.

2. 건물(建物)의 배치(配置)

조선시대 사대부(士大夫) 집안의주택을 살펴보면 바깥 마당에 문간채가 있고 대무릎 들어 서면 안마당이 있으며 그곳에 사랑채가 있다.

그리고 사랑채 뒤에 안채가 있으며 그 안채의 뒤편에 조상의 위패나 신주를 모신 사당 또는 가묘(家廟)가 있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있는 작은 뜰 안에는 우물이 있고 여기껏 그 집의 부녀자들이 갖가지 가사 노동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하였다.

운양시 근교에서 가장 전형적인 사대부 주택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아산군 송악면 외암리(민속 보존 마을)의 '영암택'이다. 설화산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정원으로 끌어들이어 연못을 만들고 정자를 세웠는데 자연적으로 조경하여 우아한 정취를 지니고 있다.

[1] 안 채

주택 건축에서 부인이 거처하고 관리하는 건무링 안채이다. 여기에는 안방과 대청·건너방·부엌을 배치하였다.

(1) 안방

안채의 부엌에 딸린 방인데 '규방(閨房)'. '내방(內房)'. '내침(內寢)'이라고도 한다. 주부(主婦)의 거처이고 침식이며 식사를 하는 방이다.

가정 생활의 중추부가 되며 각종 광의 열쇠나 귀중품들이 보관된다.

안방 아랫목에 다락문을 등지고 앉도록 보료를 깔고 장침(長枕)과 사방침(四方枕)을 놓고 안석(案席)을 기댄다. 보료 앞에는 방석들과 화로가 놓인다. 웃목에는 사방탁자가 방 모퉁이에 하나씩 놓이고 장이나 놓은 웃방의 웃목에 놓는다.

(2) 웃방

안방에 이어 위쪽에 위치하는 방인데 주부(主婦)나 어린 자녀들이 거처하는 곳이다.

(3) 건너방

마루방이 있는 주택에서 마루방을 사이에 두고 안방과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방인데, 안주인의 성년된 자녀나 또는 며느리가 거처하였다. 웃목에 장롱이 놓이고 색실함·반짚고리를 그 위에 얹어 두었다.

웃을 넣어 두는 장롱이 구비되지 못한 집안에는 방의 벽에 대나 나무의 두 끝에 끈을 매어 단 '햇대'를 마련한다. 이 햇대에 웃이나 훌이불 등을 걸어 두고 먼지를 방지하고 웃가지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위에 햇대보를 씌운다.

햇대를 '의항(衣桁)'이라고도 하는데,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이 햇대를 떼어 가지고 지팡이처럼 짚고 가서 새로 들어가 사는 집에 다 다시 햇대를 매었다.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무병장수(無病長壽)한다는 속신(俗信)이 있었기 때문이다.

햇대 위를 덮는 햇대보는 수를 놓아서 방의 분위기를 곱게 장식하는 구실을 하면서 먼지를 가리는 실용성도 지니고 있었다.

(4) 대청마루

대청 마루에는 뉘주가 놓이고 그 위에는 용충항아리를 얹어 둔다. 여름에는 돛자리를 깔고

창호는 들쇠에 매달고 발을 친다.

(5) 부엌

솔을 거는 부뚜막과 그 맞은 편에 찬장이 놓이는 찬간이 있다.

다가(大家)에서는 부엌을 안방에 붙여 짓지 않고 따로 반빚간(飯備間)으로 지어 여기서 많은 식구들이 먹을 밥을 찬모들이 마련하였다.

(6) 부엌광

주로 식생활에 관계되는 물건을 저장하는공간인데, 부엌의 한 쪽에 설치한다. 광의문에는 자물쇠를 채워 두기도 했으며 광의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을 저장하기 편리하도록 선반이나 말코지를 설치하였다.

선반은 한자어로 '현반(懸盤)'이라고 하는데 물건을 얹어 두기 위하여 긴 널조각을 '까지발'로 받쳐 벽에 가로 매어서 만든 것이다. 여기에 여러 가지 보따리나 그릇, 상자 등을 얹어 둔다.

말코지는 물건을 걸기 위하여 벽에 달아 두는 나무 갈고리인데, 흔히 가지가 여러개돋친 나무를 짊막하게 잘라 다듬어서 노끈으로 달아맨다. 이 말코지에는 마늘, 메주, 시레기 따위를 엮어서 매달사이 망태기에 물건을 넣어 걸어 둔다.

(7) 대청(大廳)의 구조

재래식 건축에서 집채 가운데에 있는 마루로 된 방을 대청이라고 한다.

한옥의 안방이나 건너방이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대청의 성격은 매우 포괄적이었다.

대청은 방과 방 사이의 공간에다 흔히 우물 마루를 놓았으며 그 넓이는 작게는 1~2칸으로부터 6칸 대청에 이르기까지 가옥의 규모에 따라 달랐다. 그리고 대청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채의 대청이나 사랑채의 대청을 론하고 비교적 개방적이면서도 번잡한 공간이다.

특히, 봄·여름·가을의 춥지 않은 계절에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었고 제사(祭祀)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대청에서 지내야 한다는 전통적 관습이 있다.

· 분합 (分閤) : 대청 앞쪽 전체에 드리는 네쪽의 긴 창살문을 분합(分閤) 또는 분합문이라고 하는데, 겨울철에는 분합문을 닫아 대청의 보온을 하고 춥지 않은 계절에는 두짝씩 겹치게 열어 아래쪽을 들어 올려 들쇠에 걸어 놓는다.

들쇠는 '분합 걸쇠'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을 도리에 쌍으로 박아서 분합문을 두 짝씩 올려 다는데에 쓰인다.

· 교창(交窓) : 분합문 위에 가로로 길게 짜서 끼우는 빛받이 창인데 창살이 '호(爻)'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횡창(橫窓)'이라고도 한다.

(8) 마루의 제작 기법

마루는 널을 깔아 만든 바닥인데, 집채 안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바닥과 사이를 두고 약간 높게 만든 것이다. 한자어로 '말루(抹樓)' 또는 '청사(廳事)'라고도 한다. 제작 기법에 따라 장마루·우물마루·쪽마루 등 세가지가 있다.

· 장마루 : 멩에와 장산으로 바닥틀을 짠 후에 그 위에다 길고 좁은 널판들을 연이어 붙여 만든 것인데 약간 품격이 낮은 마루이며 흔히 광과 같은 곳에 설치하며 가난한 집의 대청 마루에도 설치하였다.

· 우물마루 : 건물 안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장귀틀을 대고 이 장귀틀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동귀틀을 댄 후에 여기다가 청판(마루청)을 끼워 넣어 짠 마루이다. 이 우물 마루는 옛날에 고급 한옥의 대청 마루에 설치했던 것인데 현대식 양옥에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 쪽마루 : 짧고 좁은 마루 널쪽을 같은 방향으로 널 장, 또 이와 직각되게 널 장씩 붙여 엮갈리는 무늬가 이루어 지도록 짜 넣은 마루이다.

(9) 머름

미달이의 무지방 아래안 벽 아래 중방에 대는 널조각을 '머름'이라고 하는데 방풍(防風)을 하기 위하여 하부인방(下部引榜)을 높인 것이다. 머름은 문 아래쪽에 있는 머름중방과 하인방(下引榜) 사이에 설치하며 방풍(防風)의 목적 이외에 모양을 내기 위하여 만들기도 한다.

문 아래에 가로지른 무지방 아래에 놓인 머름중방을 '머름웃대'라고도 부르며 그 머름웃대의 아래에 가로 놓인 하인방(下引榜) 위의 긴 나무를 '머름지방'이라고 한다.

그리고 머름웃대와 머름지방 사이의 공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작은 기둥처럼 토막나무를 세운 것을 '머름동자'라고 하며 머름웃대와 머름지방과 머름동자로 이루어진 작은 직사각형의 공간에다 끼우는 널조각을 '머름청판'이라고 한다.

(10) 설령(懸鈴)

처마끝 같은 곳에 달아 놓고 사람을 부를 때에 줄을 잡아당기면 소리가 나게 만든 방울을 '설령'이라 하고 또는 '현령(懸鈴)'이라고도 하며 설령을 흔들어 소리를 낼 때 잡아당기는 줄을 '설령줄'이라 한다.

(11) 현함(軒檻)

건넌방이나 대청 또는 누각(樓閣)의 기둥 밖으로 돌아가며 짠 난간이 있는 좁은 마루를 '현함(軒檻)'이라고 한다.

현함의 난간 간살을 '아(亞)'자 모양으로 엮어 짠 것을 '아자 현함(亞字 軒檻)'이라 하고 난간에다 널빤지로 구멍을 뚫어 "亞"자 모양으로 장식한 것을 '구란(拘欄)' 또는 '교란(交欄)'이라고 한다.

(12) 주련(柱聯)

기둥에다 장식으로 써 붙이는 한시(漢詩)의 연구(聯句)를 주련(柱聯)이라고 하며 또 영련이라고도 한다.

연구(聯句)는 한시(漢詩)의 대구(對句)를 이룸인데, 대구(對句)는 뜻이 상대(相對) 되는 글귀나, 어조가 비슷한 둘 이상의 글귀를 말한다.

[2] 사랑(舍廊)채

사랑채는 조선시대의 주택에서 남자 주인이 거처하던 곳인데, 여기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특히 문객(文客)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사용하였다.

아랫목에 다락문을 등지고 앉도록 보료·안석(案席)·장침(長枕)·사방침(四方枕)등을 갖추어 놓았고, 남창(南窓) 아래에는 쌍문갑(雙文匣)을 놓았으며 문갑 위에는 필통(筆筒)·필가(筆架)·화분(花盆)따위를 엮어 둔다.

보료 앞에는 화로(火爐)·재떨이·담배함·담뱃대꽃이·요강·타구 등 일상용 기구와 아울러 문방사우(文房四友)를 갖추어 넣은 연상(硯床)을 배열한다.

그리고 사랑방 웃목에는 양쪽 모퉁이에 사방탁자(四方卓子)를 놓고 책이나 모과(木瓜)같은 향기로운 과일을 엮어 놓으며 고려 청자나 이조백자 등의 그릇 따위를 올려 놓기도 한다.

(1) 사랑방(舍廊房)의 제구(諸具)

· 보료 : 속을 두텁게 넣고 만들어서 앉는 자리에 항상 깔아 두는 요이다. 흔히 고운 무늬 비단으로 겹을 구며 방안의 분위기를 화려하게 하고 편히 앉을 수 있게 되어 있다

· 안석(案席) : 몸을 기대는 방석인데, 일명 '언석(偃席)'이라고도 한다. 흔히 방안의 아랫목에 보료를 깔고 벽 쪽에 안석을 세워 놓아 등을 기대고 편안히 앉아 쉴 때에 사용한다.

고운 비단으로 무늬를 수 놓아 겹을 싸서 화려한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 사방침(四方枕) : 팔꿈치를 괴고 비스듬히 기대어 앉게 된 네모진 베개인데, 널조각으로 길이가 한자 가량 되게 여섯면에서 짜고 겹에는 형겅을 씌워서 꾸몄다. 흔히 안석 옆에다 놓고 사용한다.

· 장침(長枕) : 모로 기대 앉아서 팔꿈치를 괴게 만든 베개인데, 사방침(四方枕)보다 가로가 길다. 꾸밈새와 무늬, 용도는 사방침과 같다. 부유한 집안의 안방과 사랑방에는 보료, 안석, 사방침, 장침이 구비되어 있었다.

· 좌장(坐杖) : 늙은이가 겨드랑이를 괴어 몸을 의지하게 된 정자형(丁字形)으로 된 짧은

지팡이를 '좌장(坐杖)'이라고 한다. 나이 많은 노인이라도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또는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반듯하게 앉아서 의관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 좌장에 몸을 의지하였다. 협장(脇杖)이라고도 한다.

· 승창 : 걸상 비슷한 물건으로 직사각형의 가죽 조각의 두 끝에 네모진 다리를 대어 접고 펴게 만든 것이다. 높은 벼슬아치나 상류층의 사람들이 하인들로 하여금 승창을 가지고 따라 다니도록 하여 길에서 깔고 앉기도 하고 말을 탈때에 디디기도 하였다. '거상' 또는 '승상(繩床)'이라고도 부른다.

· 문갑(文匣) : 문구(文具)나 문서 등을 넣어 두거나 완상품을 진열하는 기구인데, 가로로 서랍이 여러 개 있다. 죽제(竹製)문갑, 송제(松製)문갑, 화류(樺榴)문갑, 먹감나무 문갑, 자개문갑, 등책 문갑 등이 있으며 특별히 화류(樺榴)로 만든 문갑에 다 산호, 비취, 밀화 등으로 정교하게 조각한 것을 장식한 고급품도 있다.

문갑은 보통 창문 아래 쪽에 놓아 두고 붓통, 지통(紙筒), 가벼운 도자기, 화분 등을 올려 놓아 멋을 내기도 한다.

안방용 문갑은 구조와 외형이 섬세하고 화사한데 사랑방용 문갑은 묵직하고 화려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다.

· 연상(硯床) : 연상은 벼루(硯)를 올려 놓는 상(床)이라는 뜻인데 곧 책상(冊床)을 말한다. 연상 위에는 벼루, 연방(硯房), 연적(硯滴), 필통(筆筒), 먹, 종이 등의 문방사우(文房四友)를 갖추어 놓았고 이 연상 위에 서책(書冊)을 올려 놓고 독서를 하였다.

· 필통(筆筒) : 필통은 붓을 꽂아 두는 통인데 도자기, 대나무, 또는 나무 등으로 만든다. 이 필통에는 초필, 간필 등의 작은 붓을 꽂으며 대필(大筆)은 필가(筆架)에 걸어 둔다.

· 사방탁자(四方卓子) : 다과·서책·가벼운 화병 등을 올려 놓는데 사용하는 네모반듯한 장식용 탁자이다. 선반에 너댓 층으로 사방이 탁 트여 있어서 사방 탁자라고 부른다.

제일 아래층은 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후기에 문갑의 형태가 발전하여 생겨난 문방 가구로서 사랑방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나 사대부(士大夫)나 부유층의 가정에서는 안방에서도 애용되었다. 형태가 개방적이며 투시적인 공간성을 지녔기 때문에 현대식 주거 공간에다 장식품을 진열하기에도 적합하다. 재료는 배나무·참죽나무·느티나무 같은 나뭇결을 이용하여 만드는데, 일명 '책탁자(冊卓子)'라고도 한다.

· 죽책(竹冊) : 종이가 없었던 고대사회에서는 대나무를 쪼개어 가죽끈으로 엮는 죽책에 글을 새기거나 붓글씨를 써서 기록을 남겼는데, 종이가 발명되어 모든 책을 동이로 만들어 쓰던 시대에도 특수한 목적을 지닌 기록은 죽책에 기록하여 후세에 영구 보전토록 하였다.

· 서질(書帙) : 유학(儒學)의 경전(經傳)이나 사서(史書)는 대개 10여권 내지 수십권을 한 질(帙)로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권으로 된 서적을 함께 싸서 보관하기 위해 형겅으로 만든 책덮개를 서질이라고 한다.

죽책(竹冊)이나 서질(書帙)은 책탁자(冊卓子)에 올려 놓거나 다락 위에 보관했다.

3. 문(門)

사람이 드나들거나 통할 수 있도록 띄워 놓은 문은 그 종류도 많을 뿐아니라 그 구조도 매우 다양하다. 가난한 초가집의 사립문, 우람한 대갓집의 솟을대문, 나라에서 표창한 정문, 방으로 드나드는 방문, 채광이나 통풍을 위해 마련한 창문 등이 있으며 그 꾸밈새와 열개도 아름다운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1] 사립문

잡목의 가지를 걸어서 만든 문짝을 '사립짝' 또는 '경비'라고 하며, 이 사립짝을 달아서 만든 문을 '사립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싸리나무 가지를 걸어서 만든 싸리문도 있는데 이것들은 '시문(柴門)' 시비(柴扉)라고도 부르며 가난한 집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2] 대문(大門)

대문은 집의 정문(正門)을 말하는데 집이 가난하여 집채나 대문이 작으면 아무리 좋은 가문(家門)이라도 보잘 것 없이 보이고 세도 없는 집안이라도 대문이 크면 훌륭한 집안같이 보였기 때문에 '대문(大門)이 가문(家門)이라'는 속담도 있다. 따라서 우리 선인들은 대문 치장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1) 솟을대문

행랑채의 지붕보다 기둥을 높게 세운 대문이기 때문에 '고주 대문(高柱大門)'이라고도 불렀다. 이 솟을 대문의 양쪽에 붙어 있는 행랑(行廊)채를 '누문간채'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하인(下人)들이 거처하거나 생활하는 방이 있다. 이 행랑채를 위함하듯이 우뚝 솟은 솟을 대문은 집주인의 권위를 상징하였고 그 앞에 있는 하마석(下馬石)은 말을 타고 온 사람이 말에서 내리는 지점을 표시하는 돌이다.

(2) 정문(旌門)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 앞이나 마을 앞에 세운 붉은 문을 정문(旌門) 또는 홍문(紅門)이라고 했다. 정문을 가진 가문에는 나라에서 세금을 면제하고 그 부모나 자손에게 벼슬을 내리며 특별한 예우를 하였다.

정문의 구조는 마치 솟을대문처럼 높다랗게 대문을 세우고, 그 대문 위쪽에 홍살(紅箭)을 꽃았으며 홍살 아래에다 나라에서 포창한 충신·효자·열녀에 답나 벼슬, 본관, 성명 및 연호 등을 조각한 현판을 달았다.

[3] 방문(房門)

한옥(韓屋)의 방문(房門)은 앞으로 당겼다 미는 '여닫이문'이 있고 옆으로 밀어서 열고 닫는 '미닫이문'이 있다. 이들 출입문은 문살을 배열시킨 문양(紋樣)에 따라 용자창(用字窓)·격자창(格子窓)·만살창(滿箭窓)·새긴창 등으로 나눈다.

(1) 용자창(用字窓)

문살을 가로 두 개와 세로 한 개로 '用'자 모양처럼 성기게 대어 짠 창문이나 미닫이이다. 유리를 끼우는 문에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며 종이를 바르는 한옥의 문으로서는 매우 허술하고 조잡한 문에 속한다.

(2) 격자창(格子窓)

서민들의 한옥 출입문으로 가장 흔히 사용하였던 형식인데 문살을 격자(格子)로 짠문이나 창이다.

격자(格子)란 안팎으로 열리는 문짝이나 창문 등에 대는 쇠붙이 또는 대오리, 나무 오리 같은 것으로 가로 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도록 성기게 맞추어 짠 형식을 말한다. 이 때에 가로 지른 문살을 '종살'이라 하고 세로로 긴 문살을 '장살' 또는 '장전(長箭)'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로 지른 '동살'이 드물게 있는 부분을 '노루종아리'라고 한다.

(3) 만살창(滿箭窓)

만살창은 격자창에 속하는 형식인데 격자차오다 더 촘촘하고 '노루종아리'가 없으며 '동살'과 '장살'의 간격이 일정하도록 맞추어 짠 문이다.

(4) 완자창(卍字窓)

창이나 문의 살을 '완(卍)'자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卍'은 '萬'과 같은 글자이므로 '완자형'을 '만자형'이라고도 한다. '卍'은 불심(佛心)에 나타나는 '길상만덕(吉祥萬德)'의 상징적 부호로서 불가(佛家)에서 소중히 여겼으며 각종 무늬에도 많이 응용되었다.

(5) 아자창(亞字窓)

문짝의 살대를 '아(亞)'의 글자 모양으로 엮어 짠 창이나 문인데 '아자쇄문'이라고도 한다. 이 '亞'의 문양은 전통적으로 애용되어 왔으며 특히 아자교란(亞字交欄)·아자교창(亞字交窓)·아자방(亞字房)·아자현란(亞字軒欄)등의 한옥 문양(紋樣)이 많았다.

(6) 새긴창

여러 가지 꽃무늬의 같은 것을 아름답게 새겨서 문살을 만든 형식이다. 이 새긴창은 머무 화려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가의 주택에는 흔하지 않고 사찰(寺刹)·서원(書院)·향교(鄕校)·궁전(宮殿)등과 같은 웅장한 건물에나 사용되었다.

[4] 창 문(窓門)

창문은 채광(採光)이나 통풍(通風)을 위하여 벽 또는 지붕에 만들어 놓은 작은 문인데 '창유'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창문은 실용적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여기에 아름다움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무늬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1) 살창

가느다란 나무와 쇠로 사이를 메어 나란히 박아 만든 창인데 '살창문' 또는 '전창(箭窓)'이라고도 한다.

이 살창은 여닫을 수가 없는 고정식이므로 채광·통풍의 기능을 하기 위하여 살창 그대로 두기도 하고 종이를 발라 채광의 목적으로만 쓰이기도 한다.

(2) 들창

벽의 위쪽에 자그맣게 만든 창인데 들어서 열게 되어 있다. 그리고 들창의 받침대를 이용하여 떠받쳐 놓았다가 닫을 때는 받침대를 빼면 된다.

문짝을 문설주에 달고 여닫게 하기 위하여 돌쩌귀를 박는다. 암돌쩌귀와 수돌쩌귀가 한 벌로 되어 암쪽은 문설주에, 수쪽은 문짝에 박아 맞추어 꽂을 수 있도록 쇠붙이로 만든 두 개의 물건을 돌쩌귀라 한다.

(3) 교창(交窓)

분합문(分閤門)위에 가로로 길게 짜서 끼우는 빛받이 창문인데 창살이 '효(爻)'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횡창(橫窓)'이라고도 한다.

(4) 월창(月窓)

창틀의 모양이 '월(月)'자와 비슷하다 하여 월창(月窓)이라고하는데 홍예문(虹예門)의 형식으로 만든 창문이다.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우아한 느낌을 주며 창살도 완자문(卍字紋)이나 아자문(亞字紋)등 아름다운 문양으로 짜서 조형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5) 원창(圓窓)

창틀을 둥글게 짜서 만든 창문이다. 직선적인 각창(角窓)보다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 원창은 문틀을 둥글게 만드는 데에 많은 기술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 흔하지는 않았으나 풍류가 있는 선비들이 독서하는 서실(書室)에 이 원창을 만들고 그 창가에서 책을 읽는 운치를 맛보기도 하였다.

[5] 문살의 종류

문짝의 뼈가 되는 나무오리나 대오리 등을 문살이라곤 하며 창에는 창살이 없다. 이 문살이나 창살은 유리를 끼우거나 종이를 바르는 데 의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깎아서 사용하며 깎는 작업을 '살밀이'라고 하는데 흔히 등밀이·골밀이·투밀이 드이 세가지가 있다.

(1) 등밀이

걸창 분합작의 창살을 등만 두 줄이 지게 약간 밀어 만든 창살이나 문살을 '등밀이'라고 한다.

(2) 골밀이

골변탕으로 밀어서 등에 골이 지게 만든 문살이나 미닫이틀을 '골밀이'라고 한다. 골변탕이란 나무에 오목한 골을 파는 대패의 일종이다.

(3) 투밀이

창살의 등을 둥글게 만드는 일을 '투밀이'라고 한다. 창살이나 문살에다가 종이를 바르는 쪽은 골이 있거나 무늬가 있어서는 아니 되고 되도록 판판해야 하는데 이것을 '배'라 하고 그 반대쪽을 '등'이라고 하였다.

4. 석축(石築)과 담장

전통적인 한옥(韓屋)에는 석축(石築)이나 석대(石臺)를 많이 하였고 담장은 토담이 일반적이었으나 부유층에서는 아름다운 꽃무늬를 놓은 화문장(花紋牆)을 만들었다.

[1] 반화방(半火防)

집의 바깥 벽을 중방 위는 흙으로 얇게 흠벅을 치고 아래는 돌을 섞어서 두껍게 함벽(含壁)을 친 벽이다.

[2] 문석대(紋石臺)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돌을 보기 좋은 무의 모양을 이루도록 쌓아 올린 석대(石臺)이다.

이 석대 위에 한옥을 건축하여 아름다움의 조화를 이루었다.

[3] 영롱장(玲瓏牆)

아름다운 꽃무늬로 장식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란하도록 영롱하게 쌓아 올린 담장이다. 꽃무늬는 반자 무늬의 비슷한 연속 무늬로 이루어진 화문장(花紋牆)의 일종이다.

[4] 화초장(花草牆)

화초장은 화문장 가운데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담장이다. 여러 가지 색깔로 글자나 무늬를 놓고 쌓은 담인데 담의 면(面)주의를 '귀'자, '亞'자, 또는 뇌문(雷文), 초룡(草龍) 따위의 선을 두르고 그 가운데에 십장생(十長生)이나 화초의 모양을 그려 넣었다. 그밖에 벽돌을 사용하여 간단히 당수복(唐壽福)을 넣어 쌓기도 하였다. 화초장을 조각(彫牆)이라고도 한다.

5. 조명 기구 (照明器具)

옛날에 우리 선인들이 사용하던 조명 수단은 동·식물의 기름이나 초에다 불을 붙여 어둠을 밝히거나 햇불 또는 등롱을 사용하였다.

[1] 실내 조명 (室內 照明)

(1) 유경

놋쇠로 만든 등잔 받침을 유경이라 하고 나무로 만든 것을 '등경(燈)' '등경걸이', '등가(燈架)', '등잔걸이' 등으로 불렀다.

등잔(燈盞)은 놋쇠나 사기그릇으로 술잔 비슷하게 만든 것인데 등잔걸이에 걸어 놓고 참기름, 들기름, 아주까리기름, 징승의 기름 따위를 넣어 심지를 만들고 불을 붙였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부터는 석유가 수입되어 사기로 만든 호롱에 석유를 넣고 심지에 불을 붙여 호롱불을 켰다.

(2) 등대(燈臺)

등잔에 불을 붙여 올려 놓는 받침을 등대라고 한다. 등잔걸이는 필요에 따라 등잔을 높였다 낮추었다 할 수 있으나 이 등대는 일정한 높이에 등잔을 올려 놓고 일을 보도록 만든 것이다.

(3) 새발 심지

종이나 솜으로 새발처럼 세 갈래가 되게 심지를 만들어서 기름 접시나 기름 종이 등에 세워 놓고 불을 붙이면 마치 촛불이나 호롱불처럼 방안을 환하게 밝혀 준다.

등잔 심지는 길어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으나 새발 심지는 짧아서 자주 심지를 새것으로 갈아 세워야 하는 단점은 있어도 밝고 정결한 장점이 있다.

(4) 촛대(燭臺)

촛대는 촛불을 켜서 꽂아 놓는 제구인데, 놋쇠·백동·함석 등으로 만든다.

초는 밀, 백랍(白蠟), 쇠기름 등의 기름을 끊어서 갖가지 모양으로 굳혀 실 같은 것으로 심지를 만들어 한가운데에 박아 이 심지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혔다. 오늘날의 양초는 파라핀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5) 와룡촛대(臥龍燭臺)

좌룡촛대는 나무와 놋쇠로 만들고 위에서 용틀임을 새긴 것이다. 보통의 촛대보다 섬세하고 조각을 하여 모양이 아름다운 고급의 촛대로서 부유한 집안에서 사용했다.

(6) 수촉(手燭)

촛불을 켜서 이러저리 옮겨 다니면서 일을 볼때에 쓰기 위해 만든 촛대이다. 손잡이를 잡고 자주 옮겨 놓기 편리하도록 발이 세 개이고 촉꽃이에 촛불을 꽂도록 되어 있다.

[2] 실외 조명(室外照明)

실외 조명 수단도 실내 조명 기구를 그대로 이용하되 바람을 막기 위하여 주로 등롱(燈籠)을 만들어 그 속에 불을 켜 등잔이나 촛불을 넣어 걸어 놓거나 손에 들고 다녔다. 우리 선인들이 야간에 실외 조명을 위해 사용한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햇불과 등롱(燈籠)

날이 어두운 때에 나다니기 위하여 횃불과등롱을 사용했다. 횃불은 싸리, 갈대, 노가주 나무 등을 묶어 밤길을 밝히거나 또는 제사 때에 화춧불을 놓는 데 쓰인다. 이 횃불을 '거화(炬火)', '소등(燒燈)', '요거', '요화'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등롱(燈籠)은 등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기구인데 애오리나 쇠로 살을 만들고 곁에 종이나 형겅을 덮어 씌워 그 속에 촛불을 켜다. 흔히 '청사초롱' 또는 '지롱(紙籠)'이라고도 부른다.

지름 3cm, 길이 93cm가량 되는 막대기로 등롱대를 만들고 그 위 끝에 길이 18cm 되는 '황새 목'을 달고 아래 끝에 길이 13cm의 물미를 붙여 전체 길이가 124cm가 되게 하고 등롱을 메달아 들고 다닌다. 이 등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등롱꾼' 또는 '등롱잡이'라고 한다.

(2) 사방등(四方燈)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사면에 유리를 끼우거나 종이나 형겅을 발라 그 안에 등잔 또는 촛불을 켜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된 등이다.

(3) 마늘등

마늘 모양처럼 삼각 기둥으로 된 등인데, 삼면에 유리를 끼우거나 조이 또는 형겅을 바르고 그 안에 등잔불이나 촛불을 켜서밖에 매어 다는 등이다.

(4) 해산등(解散燈)

등의 문을 열지 않고 등 밑에 구멍을 뚫어 초가 드나들도록 만든 작은 등인데, 주로 기둥이나 말코지에 걸어 놓는 데에 쓰인다.

(5) 양각등(羊角燈)

양의 뿔을 물에 넣고 열을 가해 고면 뿔이 투명한 액체가 된다. 이 양각의 투명 액체를 알뜰하게 퍼서 껌질을 만든 후에 이것으로 등의 거죽을 씌운 것이다. 마치 유리등처럼 투명하여 밝게 비추어 주기 때문에 종이로 바른 등보다 실용적이다.

(6) 수박등

수박통처럼 둥글게 생긴 등인데, 대오리나 청사 따위로 둥근 공 모양의 열개를 만들고 그 위에 얇고 투명한 종이를 입혀서 그 속에 등잔불이나 촛불을 넣어 걸어 두는 등이다.

일반 가정에서 실용되기도 했으나 주로 4월 초파일의 연등절(燃燈節)에 여러 사찰(寺刹)에서 많은 수박등을 밝혀 복을 기원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7) 조족등(照足燈)

구조는 수박등과 비슷하나 손잡이가 있어 손에 들고 다니는 등인데, 마치 오늘의 '회중전등'과 같은 구실을 하였다. 이 조족등은 어두운 방길을 걸을 때 발 앞을 비추며 걸어갈 수 있게 만든 것이다.

(8) 봉등(鳳燈)

봉황새 모양으로 꾸민 등인데 화려하고 귀족적인 예술성을 겸한 고급의 등이다. 일반 서민층에서는 보기 드문 특수한 계층에서만 사용하였다.

(9) 용등(龍燈)

용의 모양처럼 꾸민 등인데 촛불을 켜 넣은 것인데, 민가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행사, 또는 집단적인 의식에 사용되었다.

(10) 옥등(玉燈)

주옥(珠玉)으로 화려하고성세하게 꾸민 등인데,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궁중이나 큰 사찰에서 특별한 경축 행사가 있을 때에 사용하였다.

6. 이용도구 (理容道具)

사람이 몸치장을 할 때 사용하는 물건들을 이용 도구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면경, 경대, 빗 등이 있다.

옛날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깎거나 자르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자라도록 하였으므로 이용 도구는 매우 단순한 것이었고 여인들은 간단한 화장을 하였을 뿐이

었다.

[1] 거울

(1) 면경(面鏡)

얼굴이나 볼 정도의 작은 거울인데 '석경(石鏡)'이라고도 한다.

(2) 경대(鏡臺)

거울을 짜 넣어 세우고 그 아래에 화장품 같은 것을 넣도록 서랍을 만들어 꾸민 제구인데 '장경(粧鏡)·'장령(粧)·'경가(鏡架)'라고도 한다.

[2] 빗

머리털을 빗는 데 쓰는 제구인데 대를 잘게 쪼개거나 나무, 뽕 같은 것을 에어내거나 혹은 금속 등으로 만든다.

빗·빗솔·비치개 같은 것을 넣어 두는 제구를 '빗접'이라 하고 빗접을 꽂아 두는 제구를 '빗접고비'라고 한다. 빗접고비는 가는 나무 오리로 직사각형으로 짜서 앞뒤에 종이를 바르되 앞쪽에 다시 두꺼운 종이를 틈이 뜨게 붙였는데, 그 틈에 빗접을 꽂게 되어 있다.

빗의 종류로는 면빗, 민빗, 참빗, 월소(月梳), 음양소(陰陽梳)등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음양소 이외의 다른 것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1) 면빗

살썩을 빗어 넘기는 작은 빗인데 '면소(面梳)'라고도 한다. 살썩은 빵 위의 귀 앞에 난 머리털인데 '빈모'라고도 한다.

(2) 민빗

"면빗"을 사투리로 '민빗'이라고도 하며, 또 머리를 빗을 때 쓰는 약간 큰 보통의 빗을 민빗이라고도 한다.

(3) 참빗

빗살이 아주 가늘고 촘촘한 대빗인데 여인들이 머리를 곱게 빗어 머리에 밀착시킬 때 사용했으나 지금의 파마 머리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취를 감추었다. '세소(細梳)' 또는 '진소(眞梳)'라고도 부른다.

(4) 월소(月梳)

흔히 '얼레빗'이라고 하는데 빗살이 굵고 성긴 빗이다. 헝크러진 머리를 얼레빗으로 빗고 나서 다시 참빗으로 곱게 빗는다.

(5) 음양소(陰陽梳)

빗살이 한쪽은 성기고 한쪽은 뽀뽀한 빗이다. 머리를 빗을 때에 우선 성긴 쪽으로 대강 빗은 다음에 다시 뽀뽀한 빗살이 있는 쪽으로 곱게 빗어 넘긴다.

7. 침구(寢具)

잠을 잘때에 사용하는 침구는 이부자리와 베개, 자리옷 등인데 온돌방에서 기거하던 우리 선인들의 침구는 매우 검소하면서도 보온에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무더운 여름철에는 평상과 죽부인을 이용하여 통풍과 함께 더위를 잊고 쾌적한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

[1] 금침장

금침장은 장롱의 일종인데 '자릿장'이라고도 한다. 상하 2층으로 되어 있어 윗층은 이불, 요 등 침구를 넣을 수 있도록 넓게 되어 있고 아래층은 설함을 두서너 개 포개 만들어져 있어 옷가지를 넣게 되어 있다. 고급 장식을 붙인 것, 자개를 아름답게 박은 것, 거울을 달아 채경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다.

[2] 베개

베개는 누울 때 머리를 편하게 받치는 침구인데 팔이나 녹두 등의 곡식 또는 쌀겨·메밀껍질 등을 속에 넣은 곡침(穀枕)과 나무로 만든 목침, 대나무로 만든 죽침, 도기(陶器)로 만든 도침, 자수(刺繡)를 놓은 수침, 솜을 넣어 만든 면침, 나무상자 모양의 퇴침 등이 있다.

그리고 6~8개의 골을 내어 골마다 수를 놓고 속에는 걸을 넣어 베갯잇을 씌운 골침, 자석등의 돌을 넣어 만든 돌베개, 국화꽃잎을 따서 말린 것을 베개 속에 넣은 국침(菊枕), 걸

명자를 넣어 만든 걸명자베개 등이 있는데 돌베개와 국화베개, 걸명자베개는 눈과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며 녹두베개는 풍(風)이 없어지고 머리가 시원해지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좋다고 한다. 배갯모의 무늬에 따라 구봉침(九鳳枕)·학침(鶴枕)·호침(虎枕)·목단침(牧丹枕)·연화침(蓮花枕)·수복침(壽福枕)·원앙침(鴛鴦枕)·봉침(鳳枕)·쌍룡침(雙龍枕)·십이장생침(十?m 念?·해학침(海鶴枕)·도침(桃枕)·기린침(麒麟枕) 등 다양한 무늬의 베개를 사용하였으며, 예의강복(禮義康福), 부귀영화(富貴榮華), 만수무강(萬壽無疆), 자손창성(子孫昌盛), 안민부귀(安民富貴) 등 길상어문(吉祥語紋)을 베개에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남상징문(多男象徵紋)으로는 박쥐무늬와 포도문(葡萄紋)이 많이 쓰였고, 부귀상징문(富貴象徵紋)으로는 목단문(牧丹紋)·연화문(蓮花紋)·봉황문(鳳凰紋)·용문(龍紋) 등이 쓰였으며 그밖에 사군자문(四君子紋)도 널리 사용되었다.

[3] 탁(榻)

좁고 기다란 평상(平床)이다. 평상은 오늘날의 침대(寢臺)와 같은 것인데 나무로 만들었고 살평상과 널평상의 두 종류가 있다.

살평상은 바닥에 통나무를 대지 않고 좁은 나무오리로 사이를 띄어서 죽 박아 만든 평상이고 널평상은 널빤지로 만든 평상이다. 살평상은 여름철에 사용하고 널평상은 주로 춘추로 사용했다.

[4] 죽부인(竹夫人)

대오리로 길고 둥글게 만들어 여름 밤에 끼고 자면서 서늘한 기운을 취하는 제구이다.

더운 여름밤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진 살평상에 누워 죽부인을 끼고 있으면 죽부인의 공간으로 시원한 공기가 유통되어 쾌적한 기분으로 숙면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이곡(李)이 '죽부인전(夫人傳)'을 지은 것을 아주 오랜 옛날부터 죽부인을 애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